

**워크숍 1**

스리랑카의 여승들: 한계를 뛰어넘는 교육

**“Sri Lankan Buddhist Nuns: Education Beyond Boundaries”**

꾼다살레 수바가(Kundasale Subhagya) 스님 / 번역 법현스님

**요약문:**

스리랑카는 제 3 세계 개발도상국으로서 그야말로 테라와다 불교의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이다. 불교는 3 차 결집 후인 기원전 3 세기에 아라한인 비구 마힌다(Mahinda)스님과 역시 아라한인 비구니 상가미타(Sangamitta)스님에 의해 스리랑카에 전파되었다. 그러나 불교가 스리랑카에 정착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고 비구니승가는 11 세기에 한 때 사라지기도 했었다. 1905 년 다시 여승들의 공동체가 생겨났지만 구속계 수계살림은 1996 년이 되어서야 다시 열릴 수 있었다. 한편 제대로 된 여승들을 양성을 위해 교육이 필수적이나 불행히도 스리랑카의 그 어떤 여승교육센터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스리랑카 여승들의 부단한 노력 끝에 2019 년이 되어서야 마침내 정부로부터 12 곳이 국립학교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노력 끝에 이러한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발생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중 가장 중대한 문제는 팬데믹으로 인해 대부분의 여승교육기관이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관하는 시험은 변동없이 1 월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는 스리랑카 여승 발전회(Buddhist Nuns' Development Society)의 대표로서 중등과정 최종 시험을 앞두고 있는 여승들을 대상으로 4 일간의 합숙 세미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스리랑카 여승 역사상 처음 시도하는 교육 세미나다. 팬데믹이라는 큰 걸림돌을 비롯하여 많은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회향함으로써 모든 불교계 종단은 물론 스리랑카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열렬한 찬탄을 받았다. 이번 성공을 계기로 우리는 스리랑카 여승 교육에 대한 새 지평을 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앞으로 한계를 넘어 스리랑카에서 여승 발전회(Buddhist Nuns' Development Society)에 관한 워크숍과 교육 세미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발표자 이력:**

꾼다살레 수바가(Kundasale Subhagya)스님은 스리랑카 여승으로 빠라데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radeniya) 부속기관인 스리랑카 대학간 교육원(Intercollegiate Sri Lanka Education)의 강사로 일하고 있다. 또한 스리랑카 여승 발전회(Buddhist Nuns' Development Society)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빠라데니아대학교 철학과 석사과정에 있다.